# 광주 '우주최光 김치파티' 31일 막 오른다

내달 2일까지 시청 일원…프로그램 다채 흑백요리사 안유성 명장 '생중계 요리쇼' 묵은지파스타 등 명인 메뉴 50여종 판매

광주시가 오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시청 일 원에서 '제32회 광주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한 이번 축 제는 풍요와 안녕에 감사하는 '김치 감사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쇼', 천인의 밥 상, K-김치파티, 김치마켓, 김치 팝업 및 대통령 상 수상 김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 진다.

'안유성쇼'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 연한 안유성 명장이 광주김치를 사용해 생중계 요리쇼를 선보인다.

명장의 칼, 명장의 김칫독, 명장의 식탁을 주 제로 광주김치를 재해석한 요리를 소개하고 관 람객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한다.

'천인의 밥상'은 다양한 김치 및 김치 곁들임 요리를 자유롭게 세분·소분해 구매할 수 있는



광주시가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시청 일원에서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제32회 광주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김치 감사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쇼', 천인 의 밥상, K-김치파티, 김치마켓, 김치 팝업,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김치축제 모습.

판매 공간이다.

올해 '천인의 밥상'에는 '묵은지 오일 파스타', 전' 등 명인의 대표 메뉴를 포함한 50여종의 메뉴

'한돈 삼겹 김치짜파', '광주김치찜', '김치 고기 가 판매된다.

축제의 핵심 공연은 전통연희와 DJ뉴진스님

의 디제잉이 결합한 'K-김치파티' 무대로 꾸며

사물놀이와 사자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 석하고 EDM 음악과 융합시켜 독특한 볼거리를

'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 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주김치박물관은 '팔도 김치'를 주제로 한 팝 업 전시를 준비했고 세계김치연구소 등은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상 수상 김치 30여 종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클래 스 ▲김치놀이터 ▲김치 체험 ▲청년 상인 오프 라인 공동판매전 ▲도시농부축제 ▲전남도 소 금홍보관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의 천일염소 비 촉진을 위한 홍보 등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29일 0시부터 11월2일 24시까지 5일 간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 광주시는 시내버스도 우회 운 행되므로 사전 교통 상황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 을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 소목장·능주 씻김굿·선자장 '전남도 무형유산' 지정

전통기술·의례문화 전승 보유자·보유 단체도 인정

전남도가 지역의 전통 기술과 예술적 전통을 계승한 소목장, 화순 능주 씻김굿, 선자장 등 3 건을 전남도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보유 자와 보유 단체도 인정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목장은 단순한 생활 기물 제작을 넘어 민족적 미감과 실용성, 장인 의 철학이 결합한 전통기술로 평가된다. 보유자 로장성설이환씨가 인정됐다.

설이환 보유자는 오랜 기간 전통 목가구 제작 기법을 정통적으로 계승, 전남에서 가장 체계적 인 전승 기반을 갖춘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특 히 장성 소목의 맥이 단절 위기에 놓인 현실에 서 지역 전통 목공의 보존과 교육 전승에 헌신 하고 있어 지정 의미가 크다.

화순 능주 씻김굿은 전남 내륙지역에서 유일 하게 실연되는 전통 씻김굿으로 세습무계 중심 의 확고한 계보를 유지하고 있다. 정통 무속의 전형적 의례 구성과 무악(巫樂)의 예술성, 지역 공동체 신앙이 어우러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 다. 보유자로 조웅석씨가 인정됐다.

조씨 무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웅석 보유자 할 계획이다.

는 고(故) 박정녀 무녀로부터 전통 의례를 전수 받아 지역사회와 함께 씻김굿의 예술성과 신앙 적가치를 지키고 있다.

선자장의 경우 담양 한경치씨가 보유자로 인 정됐다. 한경치 보유자는 40여년간 전통 합죽선 제작에 전념한 장인으로 고이기동 선자장으로 부터 전통 기법을 정통으로 전수 받아 합죽선 제작의 예술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함께 계승하 고 있다. 그의 공방은 현재 지역 주민과 관광객 이 전통 선자 제작 과정을 배우고 체험할 공간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 공예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오랜 세월 묵묵히 전통의 맥을 지켜온 장인과 지역 공동체의 노력 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지역의 전통 기술, 의례 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전승되도 록 조사·연구와 전승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악기장', '화순 능 주 들소리', '화순 내평리 길쌈노래', '진도 소포 리 길쌈노래' 등 4종목을 전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전남도 무형 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 /김재정기자







전남도 무형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소목장, 화순 능주 씻 김굿, 선자장.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지원

#### 내달 3일까지 접수…대기질 개선 기대

광주시는 27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1월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상시 감 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는 9천600만원이며 사업장에서 부 착한 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특히 방지 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022년 5월 법 개정 이 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 한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 된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광주시 환경보전과 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기자

#### 내일 동아시아 쌀문화페스타 '선진농가' 특강

전남도농업박물관은 27일 "농경문화관 시 장체험 교육 등 저탄소·친환경농업을 실천, 국 주제로 동아시아 쌀 문화 페스타 4번째 특별강 좌를 열어 친환경 저탄소 농업의 실제 현장 사 례와 미래 농업의 혁신 방향을 조망한다"고 밝혔다.

4회차 특별강좌 강연자는 영광에서 친환경・ 유기농・저탄소 농업 실천을 주도해온 강수성 너량나량유기테마파크 대표다.

강수성 대표는 바이오차 투입, 논물관리, 현

청각실에서 오는 29일 오후 3시 '선진농가'를 가 시범사업 성공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부터 가공과 체험, 지역사회 문화와 연계한 융복합 모델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 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바이오차(탄소저장기 술) 등 혁신적 영농 활동 사례와 농촌융복합산 업(6차산업)과 연계한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양시원기자



+